



지옥의 레이스... '레드불' 무덤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최강 듀오’ 웨버·베텔 미끄러지고 엔진고장 탈락
‘페라리’ 원투펀치 1·3위 통과... 황제 슈마허 4위

페라리 최고의 날이었다. 레드불로선 기억하기 싫은 ‘지옥의 레이스’였다. 페라리의 ‘원투펀치’가 1,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레드불의 ‘최강 듀오’는 레이스 도중 탈락하는 불운을 겪었다.

24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17라운드 경기에서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가 5.621km의 서킷 55바퀴(총 주행거리 309.155km)를 2시간48분20초810에 달려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다. 전날 예선에서 3위로 들어온 알론소는 전체 55바퀴 가운데 45번째 바퀴를 돌 때까지도 예선 1위였던 세바스티안 베텔(독일·레드불)의 뒤를 따라 2위를 달렸으나 46번째 바퀴에서 전세를 뒤집었다. 베텔은 엔진 고장으로 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이에 레이스를 포기했다. 알론소는 이날 우승으로 시즌 5승째를 챙기며, 랭킹 포인트 25점을 보며 231점으로 단독 선두에 올라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 종합 우승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한국 대회 전까지 1위를 달리던 마크 웨버(호주·레드불)와 3위였던 베텔은 나란히 중도에 레이스를 포기해 220점과 206점에서 변화가 없다. 1위 알론소에 14.999초 뒤져 2위로 들어온 루이스 해밀턴

(영국·맥라렌)이 210점이 돼 베텔을 4위로 밀어내고 3위에 올랐다. 이날 3위로 페라리의 ‘히든 카드’ 펠리페 마사(브라질)가 골인해, 페라리 팀은 결승사를 맞았다.

바락 공사로 경주장 완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노면에 오일이 스며 올라오는 상황에서 비까지 많이 내리 최악의 레이스가 됐다. 우승한 알론소는 “지금까지 내가 달려본 레이스 가운데 (노면이) 최악”이라고 평했고, 젠슨 버튼(영국·맥라렌) 역시 “호수 위를 달리는 느낌이다. 앞에 가는 차도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냈다.

많은 비로 인해 예정보다 10분 늦은 3시10분에야 출발한 코리아 그랑프리에는 세이프티 카(Safety Car)가 선도하며 4바퀴를 돌고 경기가 중단됐다. 국제자동차연맹(FIA)에서 선수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노면이 미끄러워 경기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후 3시16분에 중단된 경기는 오후 4시5분에야 재개됐지만 전체 55바퀴 가운데 17바퀴를 세이프티 카가 함께 달려 재미가 반감됐다. 세이프티 카 상황에서는 안전을 위해 추월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18번째 바퀴부터 세이프티 카가 빠져 경쟁이 본격화되자마자 사고가 터졌다. 1위를 달리던 웨버가 13번째 코너에서 중심을 잃고 벽을 들이받은 뒤 뒤따라 오던 니코 로즈버그(독일·메르세데스)와 충돌하며 레이스를 포기했다.

이후로는 베텔의 독주 체제였다. 세이프티 카가 두 차례 더 투입되는 등 추월할 수 없는 구간이 많았던 덕에 선두를 지키던 베텔은 그러나 46번째 바퀴에서 결국 알론소에게 추월을 허용했다. 엔진 상태가 좋지 못해 속도를 내지 못하던 베텔은 알론소에게 추월을 허용했고 곧바로 엔진에서 불까지 나는 바람에 레이스를 포기했다.

426점으로 컨스트럭터 부문 선두를 달리던 레드불은 웨버와 베텔이 둘 다 중도 탈락하며 1점도 따내지 못했다.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독일·메르세데스)는 4위로 들어와 5월 스페인과 터키 대회 4위에 이어 시즌 최고 성적을 냈다.

비 때문에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24명 가운데 9명이나 완주에 실패했다. 이번 시즌 F1 18라운드는 11월8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F1 코리아 그랑프리 종합순위

1위	페르난도 알론소(페라리·스페인)	2시간48분 20.8초
2위	루이스 해밀턴(맥라렌·영국)	+14.9초
3위	펠리페 마사(페라리·브라질)	+30.8초
4위	미하엘 슈마허(메르세데스GP·독일)	+39.8초
5위	로베르트 쿠비차(르노·폴란드)	+47.7초
6위	비탄토니오 리우치(포스인디아·이탈리아)	+53.5초
7위	루벤스 바리첼로(윌리엄스·이탈리아)	+69.2초
8위	카무이 코바야시(BMW·자우버·일본)	+77.8초
9위	닉 하이드필드(BMW·자우버·독일)	+89.1초
10위	니코 홀렌버그(윌리엄스·독일)	+80.8초



F1 코리아 그랑프리 초대 챔피언 알론소

“시즌 우승까지는 2개 대회 더 남았다”

영암 코리아 서킷 F1 초대 우승자로 기록된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는 이날 승리로 시즌 챔피언에 오를 유리한 고지에 올랐으나,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아직 시즌 우승을 장담할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브라질과 아부다비 그랑프리도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의 득점 방식을 고려하면 상위 5명의 드라이버는 누구든 우승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날 우승으로 라이벌인 마크 웨버(영국·레드불)를 11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하지만, 그는 “마크나 세바스찬 같은 불행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시즌 우승까지 가려면 끝까지 신중하게 레이스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팀 동료인 펠리페 마사가 시상대에 같이 올라 기쁘기가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알론소는 이번 대회를 위해 팀원 전체가 주말 내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특히 예선에서 경주차가 코스에 강한 모습을 보여줘 좋은 결과를 자신했다고 밝혔다.

2005년과 2006년 F1 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낸 알론소는 최근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2년간 르노 소속으로 뛰며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독일)를 밀리치고 정상에 지켰던 알론소는 2007년 맥라렌으로 이적했으나 당시 호흡을 맞췄던 루이스 해밀턴(영국)과 불화설이 나온 끝에 시즌을 3위로 마쳤다. 2008년 다시 르노로 돌아왔으나 순위는 5위까지 밀렸고 지난 시즌에는 랭킹 포인트 26점밖에 따내지 못하며 9위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페라리에 합류한 알론소는 개막전인 바레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부활을 알렸다.

2008년 10월 일본 대회 우승 이후 1년 5개월 만에 정상에 복귀한 알론소는 이번 한국 대회까지 5승을 따내며 2006년 이후 4년 만에 종합 챔피언 복귀를 노리게 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무인텔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